

서지

261.7

452.7

칼빈에 있어서의 교회와 국가

지도교수 : 이 보 민

이 논문을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1984. 2. 17

고신대학 신학대학원

신 학 전 공

박 진 용



고신대학교



166

박진용의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198 년 월 일

차 례

서 론	2
제 一 장 칼빈의 국가론의 배경	5
I. 사상적 배경	5
II. 역사적 배경	8
제 二 장 칼빈의 국가관	12
I. 국가의 개념과 그 현실	13
A. 국가의 기원	14
B. 국가의 기능	16
II. 국가와 법	21
III. 통치자의 책임	23
IV. 국민의 임무 (의무와 권리)	27
제 三 장 교회와 국가	31
I. 교회와 국가의 규범	32
II. 교회의 본질적 특성	33
A. 신도의 어머니로서의 교회	34
B. 선택의 무리로서의 교회	36
C.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	38
결 론	41
참고도서 목록	44

序 論

教會는 社會 倫理에 있어서 어느 시대나 두 가지 態度가 있었다. 하나는 國家·社會와 그 질서를 棄해 버리려는 극단적인 소극적 態度이고, 다른 하나는 거기에도 神聖한 요소와 使命이 있다고 생각하여 그것의 向上과 醇化를 위해 애쓰는 적극적인 態度이다. 前者의 경우에는 과격한 未來主義와 終末論的인 信仰과 함께 結付되기 쉬운 것이며, 그러한 態度는 國家와 社會와 더불어 쓸 데 없는 충돌을 가져올 뿐이다. 그렇지만 참된 教會의 主流는 잘못된 世俗의 모든 秩序를 속량하여 기독교化하려는 것이고 이 같은 態度가 교회 자체의 위치와 그 本來的인 使命을 강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던 것이다.

또, 教會는 한 國家보다 더 큰 것이고 더 永久的인 한 神聖한 질서임을 自覺할 때 興亡 성쇠가 빈번한 世上의 國家와 그 질서를 선도하며 인도할 아량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教會와 國家의 關係는 결코 단순한 것이 아니어서 지난 과거의 教會 歷史를 통해 볼 때 이들간에 상당한 問題點들이 있어 왔고 오늘날에 있어서도 적지 않은 問題性들을 안고 있기 때문에, 이 둘 사이의 질서 관계를 歷史的으로 考察하는 同時에 그 正當한 관계가 어떠한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더욱이 現在의 한국 教會의 歷史는 우리나라의 政治的 狀況과 매우 密接한 관계를 가지고 오늘에 이른 것은 事實이다. 한국 개신교의 歷史가 이제 一世紀에 不過하지만 이 나라의 近代化와 그 時期를 같이 할 뿐만 아니라 그 일에 앞장을 섰던 것이고 보면 더욱 이 兩者의 관계는 密接한 것이다. 이러한

歴史的 背景과 現實的인 狀況 속에서 교회 자체의 문제와 함께 국가와의 관계성이라던가 교회의 사회적 현실 참여에 관한 문제를 재검토하여 새로운 교회관 내지는 국가관을 定立하므로써 이 때까지의 잘 못되었던 點들을 改善하여 未來에 있어서의 보다 나은 바람직한 相互 관계를 모색해 보려고 함이 本 論文이 시도하는 바 目的인 것이다.

한국 교회를 보면 아무래도 長老敎가 長子 敎會라함은 自他가 共認하는 바이기 때문에 長老敎와 密接한 관계가 있는 칼빈의 國家論을 소재로하여 이 問題를 연구해 보는 것은 더욱 意味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바이다.

大體的으로 보면 西歐에 있어서 敎會는 여러 面에서 國家와 깊은 관계를 가지고 오늘에 이르렀다. 敎會가 社會의 代辯者로서 國家에 對應하여 왔으며, 때로는 敎會가 國家의 抑壓과 박해를 받았지만(로마帝政初期) 굴하지 않고 계속 사회로 침투하여 사회의 힘이 되어 마침내는 國家로 하여금 敎會를 公認하게 하였고, 나아가서는 中世에 와서는 敎會가 社會의 道德的 질서를 確立하였고 서구의 역사를 주도하였던 것이다. 하지만 거기에서 敎會와 國家의 영역을 確實하게 구별하지 않음으로 해서 르네상스와 종교 改革이 일어나게 되었고, 따라서 政敎 분리의 문제가 대두되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複雜한 歴史的 事件들을 背景으로하여 볼 때 우리 한국에서는 政敎 분리論의 문제는 과거의 서구에서와 같이 양자의 主權관계로 야기된 것은 아니다. 彼此間에 영역을 確實하게 해서 서로 침해하지 않는 原則만 確立되면 이 兩者間의 관계는 매우 理想的으로 發展되리라 믿

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칼빈의 國家論이 말해주는 해결방안이 무엇임을 찾고자 한다.

칼빈의 作品인 基督教 綱要 第四卷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을 부르시고 堅持하시는 두 개의 外的 手段 即 하나님께서 制定하신 두 개의 질서로서의 教會와 國家의 관계를 論述하였으며, 특히 最終章에서 國家에 대하여 具體的으려 論述하므로써 그의 政治 神學을 樹立하였다. 이로써 政治的 영역에 대한 칼빈의 理論은 새로운 紀元을 세웠으며, 國家 存在에 대한 새로운 성격과 지향점을 주므로써 칼빈은 政治的 문제에 대하여 조직적인 배려를 해 준 唯一한 初期 改革者였던 것이다. 本 論文은 基督教 綱要를 中心으로 칼빈의 教會論과 국가관을 토대로 하여 이 둘의 관계성을 전개하면서 同時에 各己의 本質도 재검토하면서 相互 領域을 침범하지 않는 가운데 이 兩者의 共同 目標를 達成할 수 있는 最善의 길을 모색하고자 한다.

第一章 칼빈의 國家論의 背景

칼빈의 國家論에 대해서는 자신의 저서와 실제로 그가 주도한 市政과 社會生活을 지도한 그 자신의 政治活動을 통해서 알아 볼 수 있을 것이다. 루터는 政治에 관해 별 관심이 없었지만 반면에 칼빈은 政治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으며 어느 학자보다도 적극적으로 政治的인 行動을 사람들에게 권장하였던 것이다. 참으로 칼빈의 견해대로 宗教的 동기에서 나온 對國家 政治的 관심은 유럽 각국에 있어서, 그 후의 칼빈주의 歷史에서 가장 잘 드러났으며 그것은 더 나아가서 現代 民主主義의 政治의 발달의 원인이 된 것이다.¹⁾

1. 思想的 背景

또, 教會와 國家와의 관계에 대한 칼빈의 思想을 설명하기란 그리 容易한 일이 아니다. 思想이란 思考한 내용을 체계화한 것을 의미하며 思考한 내용을 체계화하려는 거기에는 일정한 原理에 의해서만이 可能한 것인데 과연 칼빈의 神學的 原理는 무엇일까? 어디에 근원을 두고 그의 神學이 출발하였을까?²⁾

시몬은 칼빈의 思想의 方向을 그의 神學의 대상에 입각하여 해명하려고하는 반면에 알프레트 필러(Alfred Gohler)는 칼빈의 神學에 관하여 동일한 입장에서 부분의 전체에 대한 관계를 판단하면서

1) 이장식, 基督教思想史, 제 2권(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66), P. 298.

2) 이종성, 칼 빈, (서울: 대한예수교 장로회총회교육부, 1968), P. 75.

말하기를 「칼빈 신학에는 <중심교리>가 없고 모든 敎理들이 각각 자기 입장에서 獨立的으로 중심적인 것을 항상 把握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중심교리>가 있다」고 말했다.³⁾

그런가하면 오토 리츨(O. Ritschl)은 칼빈의 '神學 체계'에 관한 저술에 있어서 "제네바 개혁자의 신관은 의로운 神"이라는 입장에서 있다. 여기에서 사랑은 의의 한 가지에 불과하다. 즉 神이 그의 의로우심을, 이미 선택과 유기에 있어서 보여 준 것과 같이 선택된 자의 구원과 버림받은 자의 형벌에 있어서 나타난다는 사실에 그의 영광이 있다고 한다. 神의 영광(Gloria Dei)이라는 이 思想은 칼빈 신학·이해의 마지막 열쇠가 되는 것이고 칼빈 신학 전체를 꿰뚫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神 概念과 연결된 예정 교리가 그의 神學 체계의 정점을 이루고 있으며 다른 모든 것은 여기서 연역된다고 본다.⁴⁾ 사실상 칼빈에게 있어서 중요한 관심사는 거룩한 社會였다. 그것이 可能的 限 지상에서 실현되어야 하는 것이었다. 이 실현이야말로 온 人類의 努力의 焦點이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모든 제도의 目的이 여기에 있다고 칼빈은 생각하였다. 그런 意味에서 교회와 국가는 이 한 가지 목적으로 연합이 된다. 그 目的은 가치 있는 그리스도교 문명을 創造하고, 信仰이 같은 思想的인 社會는 만드는 것이다. 이 목적달성을 위하여 敎會와 國家는 —

3) W. Niesel, DIE THEOLOGIE CALVINS, 이종성 역, 칼빈의 新學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73), P.17.

4) Ibid., P.15.

致 協同해야하며, 全的으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⁵⁾

칼빈은 또한 다른 학과에는 興味를 잃고 성경 연구에 몰두했던 것이다. 성경은 칼빈에게 있어서 모든 面에서 信仰과 행위의 法則인 것이다. 사람들은 자연과 歷史에서 政治學 관계의 사실들을 많이 배우며 活用하기도 한다. 그러나 칼빈은 그 자연의 冊이 가르치는 眞理가 不完全하여서 校正을 必要로할 때 칼빈은 그 교정을 성경에서 찾았다. 이 성경은 자연의 冊을 교정하는 以外에도 人類社會의 行동을 지도하는 영원한 原理가 되는 것이다.⁶⁾ 그러므로 성경은 칼빈에게 있어서 최후최고의 판결을 주는 冊이며, 특수한 의미에서 칼빈주의 政治學의 基礎가 된다.

대개 다른 사람의 사상체계들은 그 理論의 근거를, 그리고 國家의 모든 문제 해결의 原理를 성경에 두지 않고 대중의 意思나 개인의 正義感이나 或은 人權 같은 것에 호소한다. 저들은 국가를 自律的 단체로 만들어서, 원하는 것은 항상 人間的 기초에 의하여 決定하게 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칼빈은 성경 전체를 통하여 흐르고 있는 信仰의 法則에서 政治 체제의 기초와 그 支配的인 原理를 발견한다. 성경은 결코 政治가 專制政治나 貴族政治나 或은 民主政治가 되어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지적해서 宣言하지는 않는다. 다만 성경은 영원한 原理로서 모든 정치 체제의 기초가 되며 지배자가 되는 것이다. 實로 성서야말로 칼빈神學의 原理이며 그의 神學의 內容

5) A. Dakin, CALVINISM, 이병섭역, 칼빈主義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56), P.296.

6) H.H. Meeter, The Basic Ideas of Calvinism, 김진홍, 박윤선 공역, 칼빈주의 (부산: 성문사, 1959), P.99.

을 펴내는 것이다.

또, 信仰과 生活과 그리고 政治 問題에 있어서 성경을 無條件의이고 적극적인 法則으로 採用하는 일의 위대한 가치는 우리가 칼빈주의적 정치관에 대한 여러 부문에 接하게 될 때 더욱 더 분명하여질 것이다.⁷⁾

II. 歷史的 背景

르네상스가 古典復興으로써 새로운 時代의 精神을 形成하려는 것인데 對해서 宗教改革은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同一한 目的을 달성하려고 했던 것이다.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은 양상을 달리하는 하나의 變革運動의 表現이라고 할 것이다. 卽 宗教改革은 중세적인 位階主義의 권위에 반대하고 성경의 절대성과 개인의 內面的 經驗, 즉 信仰·以外에 다른 권위가 存在하지 않는다는 것을 共通의으로 주장하면서 中世에서와 같은 政治에 對한 教會의 간섭, 세속권의 宗教에의 간섭等を 배제함으로써 로마 教會와 절연하려는 것이었다.⁸⁾

존, 칼빈이 로마교회에 대하여 反感을 가지게 된 것은 學生時節 때 부터 였다. 칼빈은 1528년 갑자기 아버지로부터 法學을 工夫하라는 命을 받았다. 그것은 아버지 코반(G'erard cauvin)이 노윤(No Yon)의 教會 지도자와 충돌하게 되었는데 끝까지 그들의 권

7) Ibid., P.102.

8) 정인홍, 西歐政治思想史(서울: 박영사, 1976), P.159.

위에 굴복하지 않고 出教 당하는 것 까지 각오하고 투쟁하다가 急患에 걸려 세상을 떠나고 말았던 것이다.⁹⁾ 칼빈은 그후 로마교회와 正式으로 충돌하게 되었다. 그의 親舊 콱(Nicholas Cop)이 파리 大學의 學長으로 선출되었는데 그의 취임연설 원고를 칼빈이 代身써 주었는데 그 內容이 福音主義的인 것이라하여 솔본(Sorbonne) 神學者들의 비위를 거슬러 이단으로 몰려 체포령이 내려져 피신을 했던 것이다. 이리하여 每事에 無不干渉하는 로마교회에 對하여 모순성을 느꼈으며 反對思想이 일어났던 것이다.¹⁰⁾

한편으로 츄리히(Zurich)를 中心하여 츠빙글리(Zwingli)가 改革運動을 전개하다가 마지막 전투에서 로마 天主教軍에게 무참하게 돌에 맞고 창에 찔려 전사하게 된 사실도 칼빈으로 하여금 로마교회에 대한 反感을 가지게 된 理由가 되는 것이다.¹¹⁾

존, 칼빈은 第一次 제네바 時節(1536~1538)에 로잔느(Lausanne)에서 열린 신·구교간의 공개토론회에서와 베른(Bern)에서 열린 代表者들과의 會議(1536년 10월 16-18)에서 그의 뛰어난 조직력과 정신지식의 탁월함을 발휘했던 것이다. 그러던 中에 그는 제네바 교회의 정치기구의 確立과 요리문답서를 만들어 신도를 教育하는 일에 努力하는 동안에 많은 논적이 나타났는데 三位一體論을 否定한다고 비난했다.¹²⁾

9) 이종성, 傳統과 革新(서울:세종문화사, 1973), P.266.

10) Ibid., P.267.

11) Ibid.

12) Ibid.

둘째로 존, 칼빈이 당면한 큰 시련은 제네바市에 있는 정치가들이었다. 本來 제네바市에는 小議會와 200人議會가 있었는데 이들의 大多數는 兩會에 다 의석을 가지고 있으면서, 칼빈이 시의회에서 採擇된 교회기구 요항에 의해서 市民들의 信仰生活을 監督하려고 하자 이에 不服하고 反對하였던 것이다. 그러던 中에 결정적인 사건은 1538년 4월 21일 성 피엘(st. pierre) 교회에서 일어났으며 흥분한 군중 가운데는 칼을 가지고 칼빈을 상해하려는 者가 있어서 피신을 하기에 이르렀으며 마침내 200人 議會에서는 議會를 소집하여 칼빈에게 제네바를 떠날 것을 결정하였다. 그리하여 칼빈은 베른, 주리히, 바젤등지로 전전하게 되었던 것이다.¹³⁾ 이와 같이 하며 칼빈은 적어도 1553년까지 제네바 市議會와 싸우지 않으면 안되었던 主要原因은 宗教會議의 권한을 完全히 회복함에 있었던 것이다.

마지막에 있어 묵과할 수 없는 한 가지 事實은 프랑스에서 증성스럽고 경건한 신도들에 대한 비참한 박해사건인 것이다. 國王 프랑시스 一世(Francis I)는 1535년 1月을 기하여 殺氣등등한 新教徒 迫害者가 되었다. 그리고 나서 그 박해사건을 正當化하기 위하여 처형당한 자들은 재세레파, 열광주의자나 사기꾼이어서 狂的인 행동과 거짓된 思想으로 宗教뿐 아니라 사회질서를 문란케한 사람들이라는 거짓 冊字를 流布하였던 것이다. 그렇게 하므로서 살인행위를 계속 擴大하려고 하였던 것이다.¹⁴⁾ 이에 칼빈은 「만일 내가 있

13) Ibid., PP.271-272.

14) 심일섭편, 칼빈의 生涯와 그 神學思想(서울:신교출판사, 1959), PP.32~33.

는 힘을 다하여 그들에게 대항하지 않고 침묵을 지킨다면 나는 비겁한 자요 不忠한 者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리라고 했다. 이것이 나를 시켜 기독교강요를 출판하게 한 원인이었다」고 그의 시편강해 서문에 밝히고 있다.¹⁵⁾

또, 新敎主義의 改革運動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中世紀를 통하여 로마교회에 歸屬하고 있었던 보편주의적인 권위에 반대하는 것이었다. 여기에 초지역적인 교회권이 비판되므로써 절대군주에 의하여 담당되는 민족국가의 政治的 통일에 있어서의 장애물을 제거한다는 의미를 宗敎改革이 담당하는 것이다. 그것은 로마교황의 神的 世俗的 지배권을 破壞하고, 또 神聖로마帝國의 오해를 完成시키므로써 중세 봉건제의 전지배기구를 뿌리에서부터 동요시키는 것이었다.¹⁶⁾

존, 칼빈의 國家論은 방대한 그의 기독교강요 중에서 비록 적은 부분을 가지고 가장 末尾에 있기는하지만 그 당시의 歷史的인 소용돌이 속에서 時代的 要請에 대한 매우 중요한 思想으로서 全 유럽과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政治史上에 끼친 影響이 至大한 것이다.

15) Ibid.

16) 정인홍, 政治思想史(서울: 박영사, 1969), PP.212~213.

第二章 칼빈의 國家觀

國家는 一定한 領土 안에서 독자적 정부 아래 조직되었고, 최고 기관으로서 百姓의 인정을 받은 政治的 공동체인 것이다. 그리고 국가는 그 국가를 인정하는 모든 國民의 幸福한 生活을 保障해 주며 社會의 安寧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國民을 公正한 法律로써 통치하는 기관인 것이다.

이에 존, 칼빈은 국가의 위치를 그리스도의 統治에 對한 奉仕에 있다고 본다. 그가 이 世界統治를 問題삼을 때, 特히 重要視한 事實은 구체적인 국가 或은 기독교 국가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문제였으며, 이 주와 우리와의 교제에 대하여 이 世上의 통치가 어떠한 의의를 지니고 있는가 라는 點이다.¹⁾

또, 옛날 헬라의 國家는 專制主義였으며 따라서 宗教는 국가의 영광을 위하여 奉仕하는 수단과 방법이였다. 중세기에 들어와서는 반대로 教會國家가 되었다. 그리하여 국가로 하여금 教會에 奉仕케 하기 위하여 교황에게 지상의 나라를 다스릴 절대적인 권리가 주어졌다. 칼빈은 교회와 국가를 다같이 주권적인 하나님으로부터 그 자체의 권위를 부여받은 상호의존적인 기관으로 보았다. 이러한 概念에서의 국가는 세속적인 것이 아니며 국가와 교회는 현대적인 어의에서 서로 分立되는 것이 아니다.²⁾

1) W. Niesel, Die Theologie calvins, 이종성역, 칼빈의 神學(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73), P.224.

2) H.R. Vantil, The calvinistic Concept of Culture, 이근삼역, 칼빈主義文化觀(부산: 영음사, 1972), PP.131~132.

I. 國家의 概念과 그 現實

모든 人間은 타락하여서 罪惡 狀態에 빠져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國家를 세우시고 政府와 官憲을 認定하셨다는 聖書의 思想에 입각하여 칼빈의 國家觀은 전개된다. 즉 이 世界의 통치는 神의 섭리와 거룩한 制定에 기초한다.³⁾ 따라서 政治的 권위는 이 世界를 하나님의 권위에 의하여 지배하도록 하나님이 規定한 것이며, 그것은 地上에서 하나님을 대리하는 것이다.⁴⁾ 칼빈은 루터처럼 하나님의 世界 통치는 두 形態의 政府 즉 사람의 내부 영혼에 영생과 관계되는 政府와, 市民的인 諸機關 및 행위를 다스리는 外的 規律에 관계되는 政府가 있음을 말한다.⁵⁾ 그런데 루터는 이 두 政府 사이의 연관성에 대하여 두 가지 面을 생각한다. 하나는 위로부터의 관계, 즉 하나님 편에서 본 연관성이고 또 하나는 아래서부터의 연관성이다. 루터는 이렇게 信仰과 행위의 역설적인 조화론을 가지고 世上의 法律 본위의 政府와 教會의 福音 본위의 政府 사이에 地上的인 연관성을 지적하므로써 아우구스티누스의 두 나라 思想 즉 神國과 世上國家 사이의 關係 概念의 一端을 보여준다.⁶⁾ 그러나 칼빈의 경우에는 이 두 政府가 다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왔음을 주장하는 점에서 루터의 思想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그러므로 통치자들은 神

3) J. Calvin, *Ins.*, 4. 20, 4.

4) D. Bonhoeffer, *Ethics* (London: SCMpress Ltd, 1955), P.297.

5) F. W. Coken, *Readings in political philosophy.* (New York: The Macmillian co., 1938), P.335.

6) 이장식, *기독교 사상사*, 2권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66), P.295.

으로부터 課業을 위탁받아 神의 代行者로서 神의 일을 집행하는 것이다. 이러한 하나님의 世界 통치 方法은 대개 그가 간접적으로 그의 주권을 행사하신다는 것에 기초를 두고 있다. 神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王으로 삼으셨고 지금은 그의 도움을 얻어 통치하신다. 그리스도는 동시에 神의 대리 행사자요, 地上의 모든 주권은 “우리 主 예수 그리스도의 王的 주권의 모사물(模寫物)이다.”⁷⁾ 따라서 이 世界의 모든 國家가 그리스도 안에 그 기초를 두고 있다. 그리고 그에 의하여 유지된다. 그의 보좌가 우리 사이에 설정되어 있으므로 그의 天的인 음성은 통치자와 피통치자를 위한 삶과 죽음의 유일한 것이다.⁸⁾

A. 國家의 起原

존, 칼빈이 국가의 권위가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왔다. 함은 곧 국가의 기원을 創造때에 두는 것이다. 브룬너(G. Brunner)는 이를 가리켜 “創造秩序”라 하며, 이러한 질서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國家와 國家의 法이라고 한다.⁹⁾ 그리고 이 모든 질서는 근본형식에 있어서는 불변의 것인데 인간의 罪의 결과로써 질서의 變化 現象이 나타난다고 한다.¹⁰⁾ 그러나 宗教改革은 공동체로서의 國家의 기원을 인간의 創造의 本性에 두려고 하지 않고, 政治的 권위로

7) Niesel, op. cit., P.225.

8) Ibid., P.226.

9) Heinrichott, Die Antwort Des Glaubens, 김광식역, 神學解題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74), P.150.

10) Ibid.

서의 국가의 기원을 罪의 타락 안에 두었다.¹¹⁾ 罪로 인하여 政治的 권위의 神的 질서를 만들 必要가 생기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정치적 권위는 하나님에 의하여 그에게 주어진 권력을 통해서 罪가 일으킨 혼돈에 대비하여 질서를 잡는다.

존, 칼빈은 국가의 形態로서 君主政治와 貴族政治와 民主政治를 열거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貴族政治와 民主政治를 적당히 調和시킨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다른 어느 체제보다 훨씬 낫다고 한다.¹²⁾ 그리고 國家의 本質로서 그 根據를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에 둔다. 만물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向하여 創造되었고 (요.일 1:3; 고전 8:6; 히 1:2), 모든 王位, 지배권, 주권, 政治的 권리도 그러하며 (골 1:16), 그리고 모든 것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존속한다. (골 1:17).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教會의 머리가 되신다 (골 1:18).

이렇게 보면 國家는 첫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使者임을 인식하게 되고, 둘째로 國家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위로부터” 온 것임을 알게 된다. 이것은 권위의 참된 기원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세째로 국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진노가 나타난 것을 보고 國家의 행위형식인 재판과 赦免의 행위를 確認할 수 있다. 네째로 국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절대권 아래 제한되어야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즉 그것은

11) D. Bonhoeffer, op. cit., P.299.

12) Inst., 4. 20. 8.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데서만 힘을 사용한다는 뜻이다.¹³⁾

B. 國家의 機能(使命)

國家의 사명은 하나님의 위탁에서 온 것이므로 그것이 教會의 史命과 根本적으로 다를 바가 없는 것이다. 國家는 教會·예배의 外部的인 面을 돌보고 보호하며 순수한 敎理를 옹호하며, 사회질서와 調和를 樹立하고 國民의 준법 生活을 지도하며 國民의 공동 권익과 平和를 樹立하는 것이다.¹⁴⁾ 人類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存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 부름 받은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옳게 예배를 받으시도록 준비하는 것이 위에 있는 권세자들의 가장 고상한 의무임을 칼빈은 의심치 않았다.¹⁵⁾ 그러므로 國家의 임무는 「우리가 사람 가운데 살아 있는 한 하나님께 대한 外面的인 예배를 보호, 육성하고 경건의 건전한 敎理와 教會의 입장을 지키고 우리의 生活을 人類社會에 適應시키고, 우리의 生活方式를 市民 社會의 定義에 맞추어서 정돈하며, 우리를 서로 화해시켜서 공공의 安寧과 平和를 유지한다」고 하는 目的이 정해져 있다.¹⁶⁾ 그리고 이 政治的 질서는 단지 모든 것이 유익하다는 의미에서 인간으로 하여금 호홉하게 하고, 먹고 마시게 하며, 따뜻하게 하는 것만을 目的으로 하지는 않는다. 나아가 우상숭배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모독과, 하나님의 眞理에 대한 모독과, 그 밖의 宗教에 대한 침해가

13) 맹용길, “교회와 국가” 오늘의 선교와 그리스도인의 자유(서울: 한국기독교 교회협의회, 1976), P.34.

14) Inst., 4.20.2.

15) Inst., 4.20.9.

16) Inst., 4.20.2.

사람들 가운데서 공공연하게 일어나 만연하는 일이 없도록 하며, 공공의 평화를 흐트러지게 하지는 않고, 각 사람이 자기 소유를 損害 보지 않고 보전하게 하며 또한 사람들 가운데서 惡意 없는 교제를 하게 하며, 그들 사이에 청렴과 절도를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¹⁷⁾

그러므로 元來 국가의 任務는 교회가 존속할 수 있고 또 必要한 事業을 할 수 있도록 사회질서를 確立하고 유지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憲法을 제정하는 일이나 條例를 실시하는 일에 있어서 教會의 忠僕으로서 活動하며, 教會의 存立을 위하여 그 권위와 권력을 사용하여야 한다.¹⁸⁾ 이밖에 高貴한 目標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活動 계통을 경유하며 有能한 國家가 달성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즉 위에 있는 者들의 가장 貴한 임무는 첫째로 하나님의 律法에 의한 이 世上의 통치에서 福音 설교와 이러한 奉仕를 받은 教會를 보호하는 것이다. “우상 숭배, 神의 이름에 대한 남용, 그의 眞理에 대한 착란 기타 다른 宗教의 착란들이 공공연하게 대중 사이에 뿌리를 박는데” 대하여 경계하는 일이다. 둘째로 이 世上의 통치는 福音을 순수하게 아무것도 混合하지 않고 宣布하는 教會에 대하여 배려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위의 권세는 教會를 존속시키며 보호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오히려 자체가 자기가 奉仕하는 그 주님의 시녀 또는 일꾼으로서 教會의 일을 수행해 나가야 한다. 위의 권세는 올바른 教理가 지배적인 힘을 가지도록 노력함으로써

17) Inst., 4.20.3.

18) Ibid.

教會를 유지하는 의무를 수행하게 된다. 위의 권세는 순수한 福音의 教會를 따라서 이런 理由에서만 教會라는 이름을 지닐 수 있는 教會를 그의 모든 일에 있어서 促進시켜야 하며 教會가 결단하고 구분하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¹⁹⁾

이렇듯 國家의 임무에 대한 칼빈의 생각이란 그 배후에 철저한 宗教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國家는 참된 宗教를 보호 育成시키며 社會·공의와 평화를 증진시키고 공공질서를 確立하여 하나님의 祝福을 받는 보다 거룩한 사회조성에 그 目的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國家는 教會와 社會에 대하여 다 같은 의무를 가지는 것이다. 그의 입장에서 볼 때 국가의 임무란 社會에 對하여서는 (1) 法の 보호자로서 公義를 실현하고 (2) 百姓의 福利를 도모하고 (3) 教會를 보호하는 것이다. 국가는 마땅히 善한 사람들을 보호하고 억울하게 눌린 者들을 풀어주고, 無罪한 者들을 옹호해주며 行惡하는 者들을 懲罰하여 사회정의를 구현해야 하는 것이다. 특히 반란자들을 진압하는 일에 있어서 무력행사함이 불가피한 것으로 생각하며, 더 나아가서는 국경을 수비함에 있어 戰爭도 용인하고 있다. 그러나 만일 어떤 者들이 「신약성서에는 戰爭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合法的인 것이라고 교훈한바도 없고, 그러한 證言도 없고, 아무런 範例도 없다」²⁰⁾ 라고 反論하는 者가 있을 경우, 칼빈은 대답하기를, 戰爭을

19) Niesel, op. cit., PP.227~228.

20) 再洗禮派의 見解

할만한 根據는 옛날부터 있었던 것같이 지금도 남아있으며, 또한 국가가 그 백성을 보호함에 있어 방해할 아무것도 存在할 수 없다고 한다. 만일 그리스도의 規律이 一切의 戰爭을 罪라고 단정한다면 군인들이 구원 얻기 위하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라고 물었을 때 세례요한으로부터 「무기를 버리고 군대에서 떠나라」는 말을 들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세례요한의 敎訓은 「사람에게 강포하지 말며 무소하지 말고 받는 料를 足한 줄로 알라」²¹⁾고 하였다.

그런고로 국토방위, 이웃 나라와의 동맹, 그리고 그밖에 여러 방위 시설의 근거는, 戰爭의 정당성에 의존하는 것이다. 여기서 방위라함은 국토를 보호하는 목적으로 국가가 준비하는 것이며, 동맹이라고함은 우방 국가에 어떤 反亂이 일어났을 때 서로 도와 人類 共通의 적에 對하여 힘을 규합하는 目的으로 상호규약을 세우는 것이다. 그리고 방위시설이란 術에 使用되는 一切을 包含한 것이다.²²⁾

존, 칼빈의 戰爭論은 주로 재침례파의 無政府主義에 反對하여 展開하는 한便, 권력을 남용하는 暴力主義에 對한 것이었다. 칼빈에 있어서 政府는 하나님께서 制定하신 目的을 가진다. 그것은 첫째로 敎會의 安寧을 보존할 責任을 가지고, 둘째는 人間性을 보호하고 社會의 正義와 平和를 樹立함을 目的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爲政者를 세우셨고 法律을 통하여 百姓을 다스리도록 하시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집권자들에게 칼을 차게하고 그 칼로써 惡을 제거하도록 하셨다. 「그가 공연히 칼을 차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

21) 누가복음 3:14.

22) Inst., 4.20.12.

의 사자가 되어 惡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음하는 자니라」²³⁾

그러므로 위정자가 칼을 가지고 惡人을 다스림은 그의 義務인 것이며 「버림받은 자들이 잔학과 殺肉을 자행할 때, 만일 위정자들이 칼을 칼집에 꽂은 채 가만히 앉아서 피를 멀리한다면 그는 큰 불경건을 행하는 것이요, 그렇게 하는 일을 善하다든가 할 수는 도저히 없다」²⁴⁾ 고 하셨다.

개인이 강도질을 하는 일은 일개 국가가 부당하게 侵略을 하는 일과 다를 것이 없다. 국가의 침략은 강도질과 마찬가지로 징벌을 받아야 한다. 그런고로 자연스런 공평의 이치에 의하여, 또한 그들 임무의 원리에 입각하여 말해도 군주들이 무장하고 있는 것은 단지 개인이 행하는 惡을 재판의 형에 의하여 抑制하기 위함 뿐 아니라 적의를 품고 침략하는 자가 있을 때 자기의 王國을 戰爭으로써 방위하고자 함이기도 하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 그리고 성령도 성경 가운데 있는 많은 證言에 의하여 이와 같은 戰爭이 정당하다는 것을 宣言하고 있다.²⁵⁾

칼빈은 이와같이 正當한 戰爭은 이를 수행해야 할 것을 주장하고 있으며, 따라서 軍을 必要한 곳에 상주시켜 국방에 종사케 하고, 또 必要하면 우방과 군사동맹을 맺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칼빈은 또한 국민으로부터 징수되는 세금을 정당한 國家의 수입으

23) 로마서 13:4.

24) Inst., 4.20.10.

로 인정하였다. 아울러 위정자들은 모든 세금이 곧 국민들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명심하여 추호의 낭비함이 없도록 각별히 조심하여 국민 전체의 公益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노력할 것을 강조하였다.²⁶⁾

이상과 같은 국가의 임무에 대한 칼빈의 견해는 다른 어떤 政見보다 우수하여 高次元의인 처지를 占領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에른스트 트릴취 (Enst Troeltsch)는 칼빈주의에 대하여 놀라운 찬사를 아끼지 않고 있다. 즉 「칼빈주의는 상충되는 개인과 사회와의 兩面을 매우 중요하고도 유력한 方法으로 均衡있게 保存시킨다... 사실로 칼빈주의 社會論의 一大 重要性은 단지 기독교 사회론에 하나의 훌륭한 種類인 點에 있지 않고 일반 社會的인 思想界의 위대한 모형들 中에 하나인 點에 그 意義가 있다. 理論의 內的 意義와 歷史上 운동력에 있어서 프랑스의 낙관적 평등주의적 민주주의나, 국가 사회주의나, 공산 사회주의나, 또는 단순한 권력설등은 칼빈주의와 비교할때 훨씬 떨어진다.²⁷⁾

II. 國家와 法

政治的 秩序에 있어서 관한 다음의 문제는 法律이다. 그것은 公共의 질서를 위한 最強의 힘을 가진다. 키케로 (cicero)는 法律

26) Inst., 4.20.13.

27) Ernst Troeltsch, The Social Teaching of the Christian Churches, Vol.2 (New York: The Macmillian Company, 1956), P.621.

을 「국가의 혼」이라고 했으며 이것이 없이는 관현도 存在하지 않는다. 그 반면에 관현 없이는 法律이 힘을 發揮하지 않음과 같다. 따라서 「法律이란 침묵의 관현이며, 관현이란 살아 있는 法律이다」라는 말 보다 더 참된 말은 있을 수 없다.²⁸⁾

국가가 정부를 樹立하고, 정부가 백성을 통치함에는 一定한 규범이 있어야 함은 말할나위도 없다. 그 규범이 곧 法律인 것이다.

칼빈은 로마서 주석에서 바울이 말한 하나님이 새겨 주신 內的法 (롬 1:21-22, 2:14-15)을 설명하면서 주장하기를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에 관한 知識, 卽 그의 永遠性, 能力, 善性, 眞理, 義 및 자비등을 알 수 있는 지식을 모든 사람의 마음에 넣어 주셨으므로 비록 이방인이 이런 神聖한 자연적인 道德心의 內在性을 거의 무시하였지만 그래도 어떤 指示者 없이도 이 內在的 道德法 곧 自然法을 反映한 法律들을 생각해 내었다고 칼빈은 생각한다.²⁹⁾

루터는 국가 정부가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여러 가지 규정에 따라 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칼빈은 일보 전진하여 국가가 그 자체의 권한으로 法을 제정할 수 있다고 말하므로써 국가의 自律性을 어느 程度 인정한다. 그러나 칼빈은 국가가 하나님의 法에서 獨立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니라 국가가 教會에 完全히 예속할 수 없음을 말함이다. 이 점에서 볼 때 칼빈의 自然法 概念은 실제적 문제에 있어서 루터보다 진보적인 것이고 광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³⁰⁾

28) Inst., 4.20.14

29) J. Calvin, The Epistles of Paul to the Romans and The ssalonians, Calvin's Commentaries, no.8.(Michigan: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73), PP.32~33.

30) Ibid.

Ⅲ. 統治者의 責任 (正當性)

統治者와 被統治者(百姓)와의 관계성인데 그것은 곧 한 마디로 말해서 「權威와 自由」의 관계이다. 이 두 概念은 政治原理 研究中 어디서나 必然的으로 광범위하게 거론되는 것이다. 통치자의 固有한 권리를 말할 때엔 그 권위를 염두에 두며, 百姓의 특권을 말할 때에는 자유를 생각하게 된다. 통치자外 피치자의 관계가 正當한 원리대로 成立될 때에만이 권리와 자유가 다함께 적당한 권리를 누리게 된다. 支配者의 無制約的 권한은 그로 하여금, 전제, 독재 또는 壓制 政治를 하는 데 이르게 하고, 百姓의 무제한적 자유는 放縱, 亂動, 無政府主義로 전락하게 된다. 그러므로 이 둘 사이에 항상 正當한 관계를 힘써 유지함은 실로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바로 여기에 責任 問題가 대두되는 것이다. 국가와 국민, 이 둘은 다같이 重要的 存在인데 칼빈은 이 문제에 있어서 어느 하나를 위해서 다른 하나를 희생시키는 方法을 말하지 않는다. 개인이나 단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高次元的인 協同에서 연합을 얻도록 하는 것이다. 이와같이 支配者와 국민이 다 같이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려는 높은 차원에서의 협동에 의하여 권리와 자유를 둘다 보전하려고 함이 칼빈의 생각이다.¹⁾

그러므로 통치자는 자신에게 부여된 통치권을 생각하기에 앞서 하

1) H. H. Meeter, *The Basic Ideas of Calvinism*, 김진홍, 박윤선공역, 칼빈주의(부산:성문사, 1959), P.147.

나눔께서 맡겨 주신 임무에 대한 책임의식을 절감해야 하는 것이다. 다 같은 사람인데 유독 통치자들에게 특별한 권위가 주어진 것은 그 권위를 가지고 임무를 수행하기 위함인 것이다.

칼빈은 政治的 권력이 하나님 앞에서 神聖하고 正當할 뿐만 아니라 有限한 人生에게 있어서 모든 部面中에 가장 尊崇할만한 것임을 아무도 의심할 수 없다고 했고, 그러므로 통치자들은 「하나님의 代理者들」로서, 하나님의 섭리와 보호와 은혜와 仁愛와 公義의 어떤 형상을 자신에서 再現시켜야 한다.²⁾ 만일 관헌이 사행을 집행하거나 罰을 가할 때 自意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自身の 審判을 代 行하는 것임을 항상 마음 속에 간직하고 있어야 한다.³⁾ 언제나 통치자가 책임의식을 가지고 해야 할 임무는 하나님께 대한 外的 예 배를 助成하고 보호하며, 건진한 教理와 教會의 安定을 옹호하며, 우리들의 生活을 인간 사회에 適應시키며, 우리들의 行動을 政治的 의에 合하게 형성시키며, 보편적 평화와 安寧을 조성시키는 것이다.⁴⁾ 即 국가는 教會 예배의 外部的인 面을 돌보고 보호하며, 순수한 教理를 옹호하며, 사회질서와 조화를 樹立하고 국민의 遵法 生活을 지도하며 국민의 公同된 권익과 平화를 수립하는 것이라고 칼빈은 주장한다.⁵⁾

이로 보건대 통치자들의 임무는 宗教的인 것과 세속적인 것의 두 面을 가지고 있는데, 국민의 평화와 질서 유지만이 아니고 上帝崇拜

2) Calvin, Institutes, 4.20.4.

3) Calvin, Institutes, 4.20.10.

4) Ibid., 4.20.2.

5) 이장식, 基督教思想史, 第二卷(서울:대한기독교서회, 1966), P.299.

를 禁하고 迷信을 박멸하고 不敬한 者들을 처단해서 福音 전파에 도움을 주며 하나님의 이름을 공언하게 모독하는 개인과 단체에 대해서는 武力을 使用해서라도 제재를 加해야 한다는 것이다.⁶⁾ 통치자들은 자기들의 직책이 神으로부터 부여된 것이기 때문에 종속된 사람들을 자기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神의 위탁 수행의 근거 위에서 다스려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⁷⁾

모든 지배자에 있어서 범하기 쉬운 과오는 자기가 스스로의 힘으로 存立한다고 생각하며 마치 하늘에는 심판자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자기 임무에 대한 무책임한 일을 자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될 때 자신들을 불러 세워 직책을 맡겨주신 하나님을 地上的인 사건의 영역에서 배제시키고 그 자리에 자기가 들어서려는 不當한 통치자가 되고만다. 성경 歷史가 보여주는 바에 依하면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不當한 統治者는 그를 세우신 하나님께서 폐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마음에 合當한 者를 세우셨던 것이다.⁸⁾ 그러므로 통치자들은 항상 자기자신들 위에 至高하신 하나님이 계심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서 책임 있는 임무 수행을 해야한다. 통치자들은 이 世上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命命하고 지배하는 위치에 있지만 언젠가는 萬主의 主되신 하나님 앞에서 보고를 해야 할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이렇듯 칼빈의 입장에서 볼 때 국가의 권력에는 限界點이 있는 것

6) Ibid.

7) Niesel, Die Theologie calvins. 이종성역, 칼빈의 神學(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73), P.232.

8) 사도행정 13:21-22.

이다. 그리하여 칼빈은 국가 절대주의(或은 國家至上主義)와 철저한 개인주의를 주장하는 古代自由主義의 中間點을 취한다.

첫째 국가 업무의 영역은 自然的 一般善을 실행함에 局限되기 때문이다. 그것은, 어떤 때에는 심령에 관계되는 信仰이나 영적 사실들을 단속할 수 없다. 둘째, 국권의 제한성은 그 국가에 살고 있는 개인의 특성에서 생긴다. 즉 개인은 국가에 의하여 또는 국가에 위하여만 存在하는 단순한 국가의 피조물이 아니기 때문이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한 자로서 국가에 대한 의무와 더불어 개인의 私生活 안에서 많은 임무와 책임을 가진 것이다. 세째로 국권에 제한성을 두는 것은 그것이 간섭할 수 없는 사회의 모든 자연적 圈界때문이다. 그것은 이를테면 가정, 학교, 경제적 사회적 모든 기관들로서 그것들의 기원과 存在形態가 國家에 存在하지 않고 하나님의 위임을 받아 각己 자체 안에서 自主權을 소유하였기 때문이다. 그中 어느 것이든 自體의 한계를 넘어서거나, 或은 他部分이나 국가의 福利에 損害를 끼치든지, 或은 자체의 임무를 등한히 하므로써 국가의 福利를 危險하게 할 때에만은 국가가 거기에 간여할 의무와 권리가 생기는 것이다.⁹⁾

국가에 둘째 큰 의무는, 국민의 一般的 福利를 추진시킴이다. 勿論 국민의 일반적 福利는 위에서 거론된 公義施行 안에 內包되어 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려는 것은 자연적 共同福利를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다.

9) H. H. Meeter, op, cit., P.136.

칼빈은 국민의 共同福利를 취급하는 임무를 정부에 歸屬시키기를 결코 주저하지 않았다. 칼빈이 제네바 정부에 제안한 여러가지 안건에서 이에 대한 증거를 많이 볼 수 있다. 물질적 思想的 또는 자선적 공익관계의 여러가지 시책을 주장하며, 관헌들로서 法과 질서를 保存하는 以外에 이 일도 해야된다고 권유하였다. 이點에 있어서 칼빈은 정부로서 빈민과 피난민들에게 公債를 貸付하여, 公衆에 관한 위생 시설을 해 놓으며, 각 지방의 세입을 통계적으로 검토할 것이며, 곡물과 포도주와 기타 物品의 값들을 定하며, 正當한 利率을 결정하며, 또 국고 수입의 증가와 市民들의 직업 確保를 위하여 명주 생산업을 국영으로 할 것까지도 장려할 것이라고 주장했다.¹⁰⁾

IV. 國民의 任務(義務와 權利)

민중은 神이 이 地上에서 神 자신의 대리자로 적합하다고 인정하신 사람들에게 복종할 의무를 부여했다. 칼빈은 이러한 의무를 - 특히 거의 설교에 있어서도 그렇지만 - 거둬 쉬지 않고 嚴格하게 한다는 것이다.¹¹⁾ 국민은 이 世上의 통치가 確立되어 있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국민에 대한 그의 아버지로서의 배려를 인식해야 하며, 위에 있는 권세가 국민을 利롭게 하기 위해서 있다고 생각해야 한다. 그 이유는 그것이 없이는 이 世上의 모든 것이, 上

10) E. Troeltsch, The Social Teaching of the Christian Church, Vol. 2. (New York: The Macmillian Company, 1956), PP.903-904.

11) Niesel, op. cit., P.236.

下的 것이 큰 혼란에 빠지기 때문이다. 결국 국민은 神 자신이 세운 위의 인물을 통해서 神 자신이 대표된다고 하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통치자들에 대한 국민의 복종의 임무인 것이다. 이 복종은 단순한 인간에 대한 복종이 아니라 그들을 세우신 하나님께 대한 복종인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국민은 위에 있는 통치가 어떠한 形態를 가지든지 관계 없이 억지로가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위에 있는 권위에게 순종해야 한다(뱀전 2:13, 14, 디 3:1)

국민이 관헌을 순종해야 할 다른 이유는, 곧 國務를 정당하게 또는 신속하게 집행하는 데는 국민의 적극적인 순종이 절대 必要하기 때문이다. 칼빈은 法律이 정부의 生命과 같다고 하면서, 질서 정연한 사회를 위하여서는 法律 순종이 그 기초가 된다고 高調한다. 이 경우 가령 통치자가 惡한 사람일찌라도 순종함에는 變함이 없음을 말한다.¹²⁾

국민의 권세에 순종해야 하는 세번째 이유는 정부를 위한 봉사 때문이다. 이 봉사는 愛國心의 발로인 것이다. 성경은 정부를 위하여 기도하되 (딤후전 2:1-3) 신자를 핍박하는 정부일지라도 기도하라고 가르친다. 국민에 대한 위의 권세의 주권은 그 본질상 봉사 以外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국민은 위의 권세와 권위에 복종하며 국가는 국민에게 복종한다. 이러한 봉사의 상호관계는 主님 자

12) 칼빈의 이 말은 惡한 관헌을 무조건 좋게 여겨 맹목적으로 순종하라는 뜻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께서 백성의 잘못으로 인한 징벌로서 惡한 지배자를 보내실 수도 있는고로 자책하면서 계속 순종하라는 뜻이다.

신이 통치자와 피통치자 위에 계시며 人類의 福祉를 위해서 이 世界 통치를 수행하신다는 사실에 根據를 둔다.¹³⁾ 위의 권세에 대한 순종은 하나님 자신이 통치자들을 세우셨다는 사실에 依存한다.

그러나 칼빈은 통치자에 대한 국민의 복종만을 강조하지는 않는다. 그는 사람보다는 하나님에게 복종하는 것이 더 낫다는 말씀(행 5 : 24)을 자주 인용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권세에 대적하며 싸우는 통치자는 實은 권세를 갖지 못한 것을 구약성경의 記事를 들어 말한다.¹⁴⁾ 이런 경우의 복종은 人間에 對해서가 아니고 그 직위에 대해서이며 직위는 침범할 수 없는 위엄을 가졌기 때문이다.¹⁵⁾ 罪를 지은 통치자를 罰하는 일은 하나님의 하실 일이지 百姓의 일은 아니다.

칼빈의 理論에는 政治的 反抗에 관한 一局面이 있다. 그는 특정한 下位 長官에게는 국가의 首班에 있는 폭군에 反抗하고 백성을 보호하는 임무를 課하는 헌법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헌법이 그러한 下位 관리들을 包含하는 경우에는 反抗的 自體는 하나님에게서 생긴다고 본다.¹⁶⁾ 그리하여 보통 민간인으로서서는 반기를 들 수 없지만 집정관(Ephoros)이나 로마의 호민관(Tribune)이나 또는 아덴스의 데마크스(Demarchs)와 같은 당국자는 폭군의 폭정으로부터

13) Niesel. op. cit., p. 238.

14) Calvin, Institutes, 4, 20, 31.

15) (삼상 24:4-7) 無罪한 다윗의 생명을 찾은 사울王일찌라도 하나님의 세우신 王인고로 다윗이 사울을 直接해치지 아니할 뿐더러 그의 부하들에게도 사울의 생명을 해치지 못하도록 명했다.

16) George H. Sabine, A History of Political Theory, 민병태 역, 政治思想史(서울: 을유문화사, 1963), P. 404.

그 백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군에 대항한 것이 그들의 권리일 뿐만 아니라 의무라고 칼빈은 말한다.¹⁷⁾ 그러므로 국민은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순종하되 다만 主 안에서 해야 한다.

17) 이장식, *op. cit.*, P.308.

第三章 教會와 國家

교회와 국가와의 관계에 대한 칼빈의 思想을 이해하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그것은 이 문제에 대한 思想發展에 있어서 各異한 여러가지 政治的 사정의 영향을 받은 때문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칼빈에 의하면 교회와 국가는 平和的으로 共存해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서로 협조해야 하며, 各者는 제각기의 法治權을 가져야 한다. 국가는 순전히 市民的이고 현세적인 일에만 권위를 가지며 教會는 영적인 일에 권위를 가진다. 그리하여 칼빈은 自身과 동역자들을 市民的인 일에 있어서 行政官에게 순종하므로써 성직자의 특권을 배제하였다.¹⁾ 행정관 편에서는 영적인 일에 있어서 성직자의 재판권 아래 들어가야 한다. 이러한 사실을 통하여 볼 때 칼빈은 국가를 크리스찬 시민에 의하여 구성된 것으로 생각한 것이 분명하다. 왜냐하면 참된 종교에 입각한 道德 없이는 진정하게 번영하는 市民 生活이 영위될 수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참된 즉 기독교에 입각한 참된 道德 없이는 社會的 政治的 生活을 유지하는 것은 不可能하기 때문이다.²⁾

中世紀 教會觀에 依하면 국가는 教會의 侍女였다. 재세례파에서는 국가를 사탄의 증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칼빈은 국가를 하나님의 종이라 주장한다. 그 이유는 市民政治는 惡을 제거하며 그들이 罪

1) Henry R. Van Til, *The Calvinistic Concept of culture*, 이근삼 역, 칼빈主義文化觀(부산:영음사, 1972), P.132.

2) Ibid.

를 짓지 못하게 함으로 人間生活을 可能하게 하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국가의 하는 일은 기록한 것이며, 하나님의 이름과 그의 영광을 위하여 실행되어야 한다.

I. 教會와 國家의 規範

칼빈은 하나님의 주권이 社會 生活의 모든 부문에 관계한다고 인정되어야 하며, 따라서 정부의 영역에도 그렇다고 해야 된다고 한다. 이에 依하여 人類를 지배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성경)으로 계시되어 우리에게 임하여 있다. 하나님은 자기의 意志를 본래 자연계에 계시하시되, 특히 사람의 마음에 그것을 새김으로 그리하셨던 것이다. 그러나 인간이 犯罪하여 타락한 후 지금은 사람의 본성으로는, 또는 본성에 의하여서 만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에 대하여 흐릿한 인상 밖에 가지지 못한다. 그러므로 본성으로 말미암은 이 자연적 인상의 전부는 다 성경에 이미 나타난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교정과 지도를 받아야 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영원한 원리들은 교회와 국가를 위한 指針이 되는 規範인데, 이 원리들이 교회와 국가의 공동 기초를 구성하는 것이다.³⁾

이에 수반되는 문제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국가 공무원들에게 알려질 것인가?이다. 或者는 칼빈이 改革主義者들에게 理想으로 제시했던 복음주의적 국가 교회, 국민교회 및 기독교 국가

3) H. H. Meeter, The Basic Ideas of Calvinism, 김진홍, 박윤선 공역, 칼빈主義(부산:성문사, 1959), P.180.

는 모두가 구약의 神政의 원리에 기초한다(Wernle 같은 사람의 주장)고 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와 반대로, 칼빈이나 그후 칼빈주의자들이 이스라엘에서와 같이 神政 政治를 하려고 所望하지는 않았다(Kuyper의 주장)고 한다. 그러나 신교에서는 개인의 판단권을 믿는다. 더욱이 칼빈주의자는 社會生活의 각 분야가 자체의 영역 안에 관계된 事項에 자주권이 있음을 인정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각 개인에게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고, 모든 사람의 양심을 통하여 그것이 알려진다.⁴⁾

혹 불신자 政治의 지도자인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教訓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責任이 면해지는 것은 아니다. 통치자가 신자이건 불신자이건 하나님께서 국가의 최고 주권자라는 사실은 그대로 변함 없이 남아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法命도 및 그것을 지켜야 하는 정부의 의무도 여전히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같이 땅에서도 실현됨에 있어서 教會는 그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다.

II. 教會의 本質의 特性

칼빈의 教會의 本質은 「거룩한 공회」를 믿는다는 데서부터 출발한다. 이 “거룩한 공회”는 地上의 可視的 教會와 산 者와 죽은 者를 莫論하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모든 사람들을 包含하는 不可視的 教會를 말함이다.

4) Ibid.

이러한 칼빈의 可視的이면서 不可視的인 教會의 區分은 모두가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는데 不可視的인 教會를 그리스도와의 영적 支際를 통한 교회라고 본다면 가시적인 것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現在 外的으로 나타나 보이는 地上的 교회, 즉 성도들의 共同體를 말한다.

하나님께서서는 그의 백성을 계속 기르시고 維持하시기를 원하시며, 또한 福音의 계속적인 선포를 위하여 교회에 이 보물을 맡겨 주셨고, 목사와 교사를 세우시고(엡 4 : 11-15) 그들의 입을 통하여 그의 백성들을 가르치게 하셨고 그들에게 권위도 주셨다.⁵⁾

A. 信徒의 어머니로서의 教會

칼빈은 教會의 本質을 論하면서 可視的인 教會를 「 믿는 者들의 어머니 」라는 말로써 要約하고 있다.

이러한 命名이 可能한 理由는 “ 하나님께서는 教會의 품에 그의 자녀들을 모아서, 教會의 도움과 목회에 의해서 養育 하시고 그들이 성장하여 믿음의 목표에 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教會의 어머니다운 보호에 의해 인도 되기를 기뻐하셨기 때문 ”이다.⁶⁾

또한 우리가 죽을 肉身을 벗고 天使처럼되기까지 계속적으로 그의 보호와 監督을 받지 않으면 生命에 들어갈 수 없으며 어머니와 같은 교회의 품을 떠나서는 罪의 용서를 받을 所望과 어떤 種類의 구

5) J. Calvin, 휴툼슨커編, 基督教綱要, 이종성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60), P.193.

6) Calvin, Inst., 4. 1. 1.

원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完成에 도달하기 전에는 이 학교에서 떠날 수가 없다.⁷⁾

하나님의 父性과 특별한 영적 생이 하나님의 百姓에 關聯되어 있기 때문에 教會에서 떠나면 곧 破滅에 이른다.⁸⁾

칼빈은 教會를 “信徒의 어머니”라고 표현하므로서 教會를 통한 신도의 必然性을 말하고 있다. 하나님은 단번에 自己 百姓을 온전케 하실 수 있으나 어머니와 같은 教會의 養育아래 두시기를 원하셨다. 이 目的을 달성키 위하여 하나님은 教理를 說教할 牧師를 세우시고 우리를 돕기 위한 교사들을 택하여 세우셨다.⁹⁾

教會가 입을 통하여 말하는 福音은 우리에게 듣기를 요구하며 우리 마음 속에 信仰을 불러 일으킨다. 하나님은 목사들에 의해서 그의 절대적인 주권을 알게 하시고저 한다.¹⁰⁾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證言者의 말씀안에서 오늘 우리 사이에 계신다. 이 말씀의 說教를 통해서 우리는 信仰으로 그와 교제하게 되며 그가 우리를 위해서 劃得하신 구원에 參與한다.¹¹⁾ 그는 우리를 定規的인 가르침의 方法에 구속 시키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의 말이나 다름없이 그의 봉사자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그는 우리의 복종을 철저히 검토하신다. 겸손의 명에가 우리에게 지워져 있다.¹²⁾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모든 宗教

7) Inst., 4.1.4.

8) Inst., 4.1.4.

9) Inst., 4.1.5.

10) Niesel, op. cit. P.183.

11) Inst., 4.1.1

12) Inst., 4.1.6.

的인 可能性들과 神認識에의 端緒들을 버리고 우리의 밖에 있는, 우리에게 對하여 서 있는 他者가 들려 주는 말씀을 단순히 받아 들여야 한다. 그러나 이 제도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의하여 우리에게 效力을 發揮한다.¹³⁾

B. 선택된 무리로서의 教會

보이는 教會를 「믿는자들의 어머니」로서 規定한 칼빈은 不可視的인 教會를 「선택 받은 者들의 무리」로서 묘사 하였다. 「教會를 믿는다」는 사도 신조는 可視的 教會를 의미하는 것 뿐만 아니라 산 者와 죽은 者를 莫論하고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 전부를 의미한다.¹⁴⁾

칼빈은 教會를 보이는 教會와 보이지 않는 教會라는 두 概念으로 나누어 말하였다.¹⁵⁾ 비록 有形의 教會 밖에 다른 教會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보이는 교회는 너무나 不完全하고 時間的으로나 地域的으로 制限 되어 있으며 標準的이며 完全한 것이 없으므로 그것의 原型이며 그것을 制約하는 보이지 않는 教會를 말한 것이다. 우리에게 보이는 教會지만 하나님의 눈에만 보이는 教會를 믿지 않으면 안된다.¹⁶⁾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子女와 불경건자, 그 외 특수한 양무리와 들짐승 사이에 어떤 구별되는 점을 찾을 수 있어야 하겠기

13) Inst., 4.1.5.

14) Inst., 4.1.2.

15) Inst., 4.1.7.

16) Ibid.

때문에 씌어진 것이다.¹⁷⁾

칼빈은 보이지 않는 教會를 말할 때에는 보이는 教會의 중요성을 약화 시킨 것이 아니고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 教會에 對立하여 보이지 않는 教會概念을 비판적으로 적용하려는 것이다.¹⁸⁾

보이지 않는 教會는 보이는 教會를 비판하고 심판하고 늘 試驗한다. 教會의 기초는 하나님의 숨으신 선택에 있다.¹⁹⁾ 보이지 않는 教會는 보이는 現實教會의 内部에서 몇명을 추려내어 形成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教會에 의해 보이는 教會가 內的으로 限界지어지며 制限을 받고, 판단을 받고 반성 되어지는 관계에 있다.

중요한 것은 教會 안에서의 하나님의 주권이며 그리스도의 영광이다. 그분만이 教會 안에서 알곡과 죽정이를 구별하신다. 그는 자신의 百姓을 아신다.²⁰⁾

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者로서의 教會를 「 믿음으로 」써 우리의 구원이 確實하고 견고한 기초 위에 설 수 있으며 따라서 世界의 전 조직이 破壞되는 일이 있더라도 이것만은 破壞되지 않는다. 무슨 變動이나 失敗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선택의 교리야말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원하신 섭리와 存廢를 같이 한다.²¹⁾

이 선택의 教理야말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確信에 거하게 한다. 이것은 教會를 약화시키는 것 같으나 바로 그것 때문에 이 世

17) Inst., Ibid.

18) Niesel, op. cit., P.190.

19) Inst., 4.1.2.

20) Inst., 4.1.2.

21) Inst., 4.1.3.

상의 權力의 모든 공격에 對하여 불굴의 體制를 確信케 한다.²²⁾

이 선택된 무리로서의 教會이해는 모든 인간들의 구원의 주도권을 하나님께로 돌려드리고 인간의 한계를 들어내며 하나님의 절대주권에 대한 信仰을 강조한 것이다.

C.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教會

칼빈은 教會를 「믿는 者의 어머니」, 「선택 받은 무리」라고 요약함과 同時에 다시 성경의 表現인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教會라는 概念을 가지고 教會를 說明한다. 教會라는 말은 “무리 全體”라든가 全世界에 흩어져 있으나 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기로 告白한 사람들을 意味하는 것이다.²³⁾ 그러므로 칼빈은 教會를 보편적 或은 우주적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教會 안에서 사는 共同生活과 個人, 全體의 個人의 관계는 全體主義的이 아니다. 그렇다고 個人主義的으로 제멋대로 움직여지는 것도 아니다. 그리스도가 이 教會의 한 복판에서 우리를 만나러 오시기 때문에 성도들의 연합이 完成되며 그리스도의 몸이 이루어지며²⁴⁾ 유기적인 삶의 法則에 따라²⁵⁾ 공동적인 삶의 지배를 받는다. 몸은 머리에 붙어 있고 全體는 마디들에 의해서 연결되어 있다. 그들은 한 머리를 의지하고 한 몸에서 자라나며 피차 일치에 이르게

22) Niesel, op. cit., P.190.

23) Inst., 4.1.7.

24) Niesel, op. cit., P.187.

25) 고전 1:12

된다.²⁶⁾

칼빈은 사도신경의 「성도의 교제」라는 귀절에서 教會의 性格이 가장 잘 表現되었다고 한다.²⁷⁾ 그 말은 첫째 우리가 하나님의 子女와 형제자매의 관계를 가져야하며, 둘째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을 서로 나누어야 하며, 셋째 무엇이든지 주님이 自己의 己에게 준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며 그들이 즐기는 모든 은사는 우리의 所望을 굳게하는 것을 意味하는 것이다.²⁸⁾ 이 「성도의 교제는」는 人間的인 確信이나 決定에 依한 것이 아니라 다만 우리에게 對한 하나님의 선택에 기초하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安定性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世上的인 共同體나 宗教團體와 구별되는 것이다.²⁹⁾ 칼빈은 改革者들에게 오해를 받아가면서도 教會의 통일성을 주장했다.³⁰⁾ 칼빈은 教會를 말함에 있어서 可視的인 教會와 不可視的인 教會로 區別하므로 教會안에 어떤 보이지않는 선을 긋는다. 그러나 不可視的인 教會란 名稱이 칼빈에게 있어서 教會분리의 구실은 아니었다.³¹⁾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청중되고 바른 성례전이 집행되는 곳에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教會가 있다.³²⁾ 고 말함으로 말씀과 성례전으로서 우주적 教會의 통일성을 유지한다.³³⁾

26) Inst., 4.3.3.

27) Inst., 4.1.3.

28) Ibid.

29) Niesel, op. cit., P.187.

30) 파키, 그리스도의 모습, 김재준역, P.116.

31) Niesel, op. cit., P.190.

32) 엡 2:20

33) Inst. 4.1.9.

칼빈은 現代의 모든 교회·분리의 주모자로 보려는 쪽은 그의 저서 中에서 이에 관한 表現을 읽지 않았다는 것을 스스로 폭로하는 것이다.³⁴⁾ 칼빈은 로마教會와의 관계를 단호히 끊어야 한다고 主張했기 때문에 분리주의자란 평을 받게 되었다.³⁵⁾ 그러나 教會가 完全히 하나님의 영광과 말씀의 宣布에서 떠났다면 이 분리는 그에게 책임을 지울 수 없는 것이다.³⁶⁾ 그러므로 칼빈은 教會에서 분리해 나온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그들의 社會에서 추방되었으며 그의 福音의 敎訓이 새로운 教會를 세울 수 밖에 없었다.³⁷⁾ 칼빈에게 있어서는 철저하게 그리스도만이 主였다. 한 個人이나 모든 個人이 融合된 全體도 教會를 마음대로 할 수 없다. 다만 그리스도만이 그것을 지배한다.³⁸⁾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분리의 危險에 빠질 수 없으며 빠져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까닭은 自己들이 하나로 接合되어 있는 그리스도의 몸의 통일성을 알기 때문이다. 이들이 분리로 돌릴 때는 教會의 분열이 아니라 참 教會로 부터 거짓 교회로 전락하는 것이다.³⁹⁾

34) Niesel, op. cit., P.195.

35) Inst., 4.2.5.

36) Niesel, op. cit., P.195.

37) 파커, 칼빈의 모습, PP.116.

38) Niesel, op. cit., P.187.

39) Ibid. P.196.

結 論

칼빈의 國家論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그의 主流를 이루고 있는 思想에서부터 始作되어야 한다. 그의 主된 관심사는 可能的 限 地上에서 실현되어야 할 거룩한 社會였다. 그러한 人間 社會를 건설하는 것이 하나님 의 敍정하신 모든 敍도의 窮極的인 目的 ियो, 그 目的을 위해서 교회와 國家는 연합이 되는 것이며 거기에서 새로운 그리스도 文明을 創造해 나아가는 것이다.

칼빈은 하나님께서 人間の 内部 영혼의 영원한 生命과 관계되는 政府와, 市民的인 諸 기관 및 行爲를 다스리는 外的 規律에 관계되는 政府와 이 둘을 사람들을 위해서 마련해 두셨다는 생각을 가지고 理論을 展開하였다. 이 두 政府는 그 영역을 各己 달리 하면서도 窮極的인 目的은 같은 故로 相互 協助하며 연합해야 하는데, 다만 미래지향적인 것에서 보다 좋은 조화를 이룩할 수 있을 것이다.

교회와 國家의 關係는 먼저 서로가 責任的 關係라야 한다.¹⁾ 이것은 教會의 社會的 責任에 根據하며, 그 구조는 協力關係에서 나타난다. 그러한 協力は 자유롭고 평등한 두 개체가 결속하는 데서 일어난다. 그리고 이 協力 關係는 共存意識에서 찾아야 한다. 이것은 서로가 固有性과 他者性을 인정하면서 同時에 一者가 他者의 도움을 必要로 하는 데서 기인한다. 이렇게 될 때 서로가 協同의 必要性을 느끼게 되며, 하나의 目的 달성을 위하여 共同參與의 關係를 맺

1) 맹용길, “교회와 국가”, 오늘의 선교와 그리스도인의 자유(서울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1976), P.37.

으므로써 조화를 이루게 된다.

둘째로 교회는 行爲의 方向을 제시하고 국가는 그에 따른 실현된 형식이 되는 관계가 成立되어야 한다.²⁾ 教會는 항상 공동 목표에 대한 방향 제시를 하고, 그것에 指向하는 행위의 本을 보여야 한다. 國家는 이러한 행위 지침에 따라 국민들로 하여금 생의 의미를 갖게 하고 자체내의 협동, 共存, 공동참여를 실현케 하며 한편 교회를 보호하므로써 항상 행위 지침을 줄 수 있게 하는 力動的 관계가 定立되어야 한다.

세째로 교회는 국가가 하나님의 使者임을 항상 일깨워주고 국가는 그 위치를 固守해 나가는 상호 應答關係가 成立되어야 한다. 이로써 교회는 時代의 파수군의 역할과 豫言者的인 사명을 完守해야 할 것이다.

다시금 總括的으로 정리해 보면, 칼빈은 理論的인 사람이라기 보다는 그 理論의 몇 배나 실제 活動하는 實踐的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國家論은 現在에 이르러 社會의 各 分野에 至大한 影響력을 미치게 된 것이라고 생각된다. 국가 至上主義를 용납하지 아니한 일이라든가, 良心의 自由를 尊重히 여기고 직업의 소명감을 가지게 한 일들은 오늘 날 우리 사회에 있어서 아직도 절실히 요구되는 바이며, 실로 한국이 칼빈 당시의 제네바市와 같아질 수만 있다면 하나님을 위해서나 우리 민족을 위해서 얼마나 福된 일이겠는가 생각된다.

2) Ibid., P.38.

한 便 社會뿐만 아니라 더욱이 교회 안에 있어서, 애당초 칼빈이 제정한 교회 規律이 제대로 시행되어지지 않고 있음은 實로 유감스럽고 통한한 일이다. 此際 칼빈의 후예들임을 자랑하는 장로교가 크게 자각하고 반성하여 교회 자체내의 재정비 운동을 일으키므로써 한국 교회의 새로운 면모를 樹立해야 할 것이다.

參 考 圖 書 目 錄

- 이종성. 칼 빈.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교육부, 1968.
- 이종성. 傳統과 革新. 서울: 세종문화사, 1973.
- 이영현. 교회의 발자취.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교육부, 1969.
- 이장식. 基督教思想史, 第二卷.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66.
- 전경연. 십일섭편. 칼빈의 生涯와 그 神學思想. 서울: 신교출판사,
1959.
- 정인홍. 政治思想史. 서울: 박영사, 1969.
- 정인홍. 西歐政治思想史. 서울: 박영사, 1975.
- Bonhoeffer, Dietrich. Ethics. London: SCM Press LTD, 1963.
- Calvin, institutio christiane Religionis. Vol. IV/1, IV/2,
渡邊信夫譯 東京: 新教出版社, 1969.
- Calvin, John. "The Epistles of Paul to the Romans and The-
ssalonians" in Calvin's New Testament Commentaries:
Translated by R. Mackenzie, Michigan: WM. B. Eerdman
Publishing Company, 1973.
- Coker, Francis william. Readings in political Philosophy.
New York: The Macmillian Company, 1950.
- Dakin, A. Calvinism. 이병섭역. 칼빈主義.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56.
- Kerr, Hugh Thomson. Edi. A Compend of the Institutes of

- The christian Religion by John Calvin. 이종성 역. 기독교 강요선. 서울 : 대한기독교서회, 1960.
- Meeter, H. Henry. The Basic Ideas of calvinism. 김진홍, 박윤선 공역. 칼빈主義. 부산 : 성문사, 1959.
- Niesel, Wilhelm. Die Theologie Calvins. 이종성 역. 칼빈의神學. 서울 : 대한기독교서회, 1973.
- Ott, Heinrich. Die Antwort Des Glaubens. 김광식 역.神學解題. 서울 : 한국신학연구소, 1974.
- Sabine, George H. A History of political Theory. 민병태 역. 政治思想史. 서울 : 을유문화사, 1963.
- Troeltsch, Ernst. The social Teaching of the christian churches : Vol. II. Translated by olive wyon. New York : The Macmillian company, 1956.
- Van Til, Henry R. The calvin stic comcept of Culture. 이근삼 역. 칼빈주의 문화관. 부산 : 영음사, 1972.

[刊 行 物]

- 맹용길. “教會와 國家”, 오늘의 선교와 그리스도인의 자유. 서울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1976.